# 일동제약,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 국내 허가 '정면돌파'

**중대본 긴급사용 불승인에**
**식약처 품목 허가로 선회**
**"유용한 치료옵션 될수 있어"**
**연내 승인 가능 여부는 미지수**

일동제약그룹 사옥. /일동제약그룹

일동제약이 긴급사용승인이 무산된 경구용(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성분명: 엔시트렐비르푸마르산)'에 대한 정식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달 28일 조코바의 긴급사용승인 필요성이 낮다고 결정함에 따라 품목 허가 절차로 선회한 것이다. 국내 제약사가 참여한 첫 경구용 치료제 허가가 연내 가능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첫 일반 환자용 치료제**

4일 일동제약에 따르면 조코바는 기존 치료제들과 다른 강점을 지닌다. 최신 변이인 오미크론 바이러스 유행 시기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을 시행했을 뿐 아니라, 백신 접종 여부 및 위험 요인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환자에게 나타나는 5가지 주요 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및 코막힘, 발열, 피로감)의 개선을 위약 대조군보다 24시간 앞당겼다. 또 임상 4일차 시점에서 조코바 투약군이 대조군에 비해 바이러스가 30분의 1로 줄어드는 결과를 냈다. 체내 바이러스 양이 감소하면 감염력도 크게 떨어진다.

일동제약은 "증상 개선은 물론 체내 바이러스가 감소하는 효과까지 모두 충족한 최초의 치료제"라고 설명했다. 화이자가 개발한 경구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경우, 증상 개선이 아닌 코로나19의 중증화율을 낮추는 효과를 인정받아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바 있다.

복용 편의성도 개선됐다. 팍스로비드가 12시간 간격으로 두가지 성분의 의약품을 1일 2회 총 3알을 복용하는 것과는 달리, 조코바는 한 가지 성분의 의약품을 1일 1회 5일간 복용하면 된다.

무엇보다 조코바는 경증환자와 저연령층 환자에 사용할 수 있어 일반 환자군을 타깃으로 한다.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MSD)와 같이 현재 사용 중인 경구 코로나19 치료제는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등의 고위험군에만 사용되고 있어 경증 환자와 일반 환자들에 복용할 수 있는 약은 이제까지 없었다. 국내 기업이 유통과 판매 담당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 향후 국내 제조까지 가능해 국내 공급 및 유통 측면에서도 안정적이다.

일동제약 측은 "조코바는 처방 범위가 넓고 복용 방법이 편리해 코로나19 치료의 유용한 옵션이 될 수 있다"며 "국내 사용 승인을 위한 관계 당국의 심사 절차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내 허가 가능할까**

조코바는 지난 11월 일본 후생노동성(MHLW)으로부터 긴급사용을 승인을 받고 현재 일본 현지에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총 200만명분의 조코바를 확보해 활용을 확대하는 추세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조코바의 긴급사용 승인 검토가 진행 중이다.

다만, 국내에서 연내 허가가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식 품목허가의 경우 신약 신청부터 승인까지는 통상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업계 관계자는 "엔데믹인데다 고위험군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치료제가 이미 처방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급할 것이 없다"며 "마스크 해제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새로운 치료제의 긴급사용승인을 내리는 것도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실내 마스크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경증 환자를 위한 치료제 수요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체제가 없는 만큼 조코바에 대한 신속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도 제기된다.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와 국산 1호 백신 스카이코비원도 신속심사를 통해 승인 기간을 크게 앞당긴 바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2020년 부터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변이 바이러스는 중증화율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경증 환자를 위한 치료제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라며 "실내 마스크가 해제되면 타미플루처럼 일반 환자들도 쉽게 복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광동제약-한림제약**

## '호르반' 독점판매 계약 체결

광동제약은 한림제약과 고농축 액상 자양강장제 '호르반'의 독점판매계약을 맺고 올해 1월부터 본격 판매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호르반'은 국내서 유일하게 반비틴크를 함유한 자양강장제로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피와 내장을 제거한 살모사를 건조해서 얻는 반비틴크는 예로부터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효능의 자양강장 성분으로 사용돼왔다. 이 밖에 녹용·로열젤리·비타민B·타우린 등을 배합해 육체피로·허약체질·병중병후·영양장애 등에 영양보급 효능을 가진 일반의약품이다.

광동제약은 이번 계약을 통해 2023년 1월부터 호르반을 국내 독점판매하며 관련 소비자 소통 활동도 전개한다. 오랜 한방 의약품 유통 노하우를 통해 제품력과 영업력의 시너지를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동국제약 센테리안24**

## '더마 펄스 부스터 멀티샷' 출시

동국제약의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는 강력한 멀티 스킨케어 효과를 선사하는 '더마 펄스 부스터 멀티 샷'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더마 펄스 부스터 멀티샷'은 동국제약의 54년 피부과학 노하우에 최신 기술을 집약해 탄생한 제품으로 한 기기에 한 가지 기능만을 담은 것이 아닌, 기기 하나로 브라이트닝, 흡수, 탄력 등 총 세 가지 기능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품은 각질을 제거하고 피부를 투명하게 가꿔주며 모공과 피부결을 개선해주는 ▲브라이트닝 모드, 멀티 중주파가 피부에 미세한(마이크로) 통로를 형성해 화장품이 깊숙이 도달할 수 있도록 흡수를 돕는 ▲흡수 모드, 미세전류 마사지 기능으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 피부에 탄력을 선사하는 ▲탄력 모드 등 총 3가지 모드를 제공한다. 각 모드별로 5단계의 강도 조절이 가능해 피부 타입이나 컨디션에 따른 맞춤형 케어가 가능하다. /이세경 기자

# '국민소주' 참이슬, 1초당 49병씩 팔렸다

**하이트진로 누적 375억병 판매**
**지난해 판매량 역대 최다 신기록**

하이트진로는 국내 대표 소주 브랜드 '참이슬 후레쉬'의 지난해 판매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No.1 국민 소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참이슬(후레쉬, 오리지널 모두 포함)은 1998년 10월 출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24년 3개월간 누적 375억병 판매됐다. 이는 1초당 49병 판매되는 꼴이다.

특히 10년간 연평균 5%씩 성장해 온 참이슬 후레쉬의 지난해 판매량은 2021년 대비 9% 증가했다.

참이슬 후레쉬는 국내 소주시장에서 16년간 판매 1위를 기록할 만큼 가장 대중적이고 규모가 큰 메가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해 눈에 띈다.

지난해 엔데믹 이후 유흥 시장 판매량이 전년대비 23% 상승하며 역대 최다 판매를 경신했다. 또 가정 시장에서도 코로나19 유행 이후 최근 2년간 연평균 10%씩 꾸준히 확대되는 등 유흥, 가정 시장 모두 동반 상승했다.

한편, 참이슬 후레쉬는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대나무숯 여과공법을 활용, 잡미와 불순물을 제거하여 깨끗한 맛을 자랑한다. 지난해에는 소주 페스티벌 '이슬라이브'를 3년 만에 개최, 다양한 컬래버레이션 활동을 통해 젊은 층의 사랑을 받아 다양한 소비자층을 아우르며 대한민국 대표 소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했다. 지난 11월에는 참이슬 후레쉬 페트 제품의 패키지 리뉴얼을 통해 재활용이 용이한 에코탭을 적용하는 등 친환경 ESG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대웅펫**

## '밀웜' 활용 반려견 영양간식

대웅펫이 단백질이 풍부한 식용곤충 '밀웜'을 활용해 반려견 이색 간식을 선보인다. 대웅펫은 식용곤충을 소재로 반려동물 영양간식을 선보이는 브랜드 '애니웜'을 론칭하고, 신제품 '애니웜 트릿' 3종(애니웜 고구마 트릿(사진), 애니웜 단호박 트릿, 애니웜 연어 트릿)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애니웜 트릿'의 주재료인 '밀웜 단백분말'은 육고기보다 단백질도 풍부하고 반려견 건강에도 좋다. 밀웜 단백분말은 100g당 60g 이상의 단백질을 함유하는데, 육류 단백질보다도 높은 함량이다.

'애니웜 트릿' 3종은 영양은 물론 맛과 재미도 더한 제품이다. 밀웜 단백분말을 사용해 양질의 단백질 공급이 가능하다. /이세경 기자

## 팔도, '팔도비빔장' 판매량 115% 신장

**칼로리 줄인 제품 등 라인업 확대**

종합식품기업 팔도가 2017년 선보인 '팔도비빔장(사진)'이 누적 판매량이 2000만개를 돌파한 가운데, 이에 힘입어 비빔장 라인업을 확대한다.

4일 팔도에 따르면, 2022년 판매량은 전년 대비 115% 신장했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해외여행, 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며 판매량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런치플레이션과 집밥 선호 문화, 자신만의 레시피로 음식을 조리하는 '모디슈머'의 증가도 힘을 보탰다.

팔도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하기 위해 라인업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매운맛 마니아를 위한 '팔도비빔장 매운맛'과 담백한 맛을 선호하는 고객을 타깃으로 한 '팔도비빔장 버터간장'이 대표적이다.

팔도는 고객 니즈가 다양해지는 만큼 오는 2월 칼로리를 줄인 신제품을 선보이고, 관련 제품도 지속 출시할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 '베그젤마', 중동 등 17개국에 공급

**셀트리온헬스케어 판매권 계약**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전이성 직결장암 및 비소세포 폐암 등의 치료에 쓰이는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를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 17개 국가에 공급한다.

4일 회사측에 따르면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해 말 중동 1위 로컬 제약사인 히크마와 요르단, 모로코 등 MENA 지역 17개 국가에서 베그젤마 공급을 위한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다. 히크마는 해당 지역에서 램시마 및 램시마SC(피하주사제형), 트룩시마, 허쥬마, 유플라이마 등 5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글로벌 유통파트너사로서 MENA 지역의 시장 특성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제품 처방 확대를 이끌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베그젤마 외에 CT-P43(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판매 계약도 함께 진행하면서 MENA 지역에서 히크마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MENA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 및 고령화로 인해 의약품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세경 기자